



중국 IT회사의 보험시장 진출 현황과 전망

이소양 연구원

요약

중국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온라인채널 수입보험료는 2017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함. 중국 대형 IT회사들은 보험판매채널 외에도 보험회사 인수 및 지분 투자를 통해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시장에 진출함. 향후 중국 온라인채널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에 따라 IT 회사들이 보유하거나 투자한 보험회사들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

○ 중국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온라인채널 수입보험료는 2017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함

- 중국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의 온라인채널 수입보험료는 2016년 2,299억 위안에서 2017년 1,876억 위안까지 감소했으나, 그 이후 2020년 2,908억 위안까지 증가함
- 2017년 온라인채널 수입보험료 감소는 생명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른 온라인채널 변액보험 및 유니버설보험 매출 감소 때문임
 - 2016년부터 중국보험감독당국은 「중단기 생명보험 관리강화 조치」, 「생명보험 계리제도 개선방안」, 「생명보험 상품개발 관리강화 조치」 등을 발표함
 - 온라인채널 변액보험과 유니버설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2016년 890억 위안, 287억 위안에서 2017년 162억 위안, 135억 위안까지 급감함
- 한편, 온라인채널 수입보험료가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9.5%에서 2018년 5.0%까지 축소되었으나 2020년 6.4%까지 확대됨

〈표 1〉 중국 보험시장 온라인채널 수입보험료 추이

(단위: 억 위안, %)

구분		2016	2017	2018	2019	2020	CAGR
생명보험	보험료	1,797	1,383	1,193	1,858	2,111	-
	증가율	22.6	-23.0	-13.7	55.7	13.6	4.1
손해보험	보험료	502	493	695	839	798	-
	증가율	-34.6	-1.8	40.9	20.6	-4.8	12.3
합계	보험료	2,299	1,876	1,889	2,696	2,908	-
	증가율	2.9	-18.4	0.7	42.7	7.9	6.1

자료: 中国保险行业协会(2021. 3)를 기초로 정리함

○ 온라인플랫폼을 운영하는 IT회사들은 판매채널로서 보험시장에 적극 진출했으며, IT회사들의 온라인플랫폼을 포함한 제3자 온라인채널은 전체 온라인채널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함

- 중국의 온라인채널은 크게 ①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등 자사 온라인채널과 ② 독립 보험대리회사 및 보험중개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플랫폼인 제3자 온라인채널로 분류할 수 있음
 - 보험회사가 이용하는 온라인채널 형태는 규모별로 다르며, 대형사는 자사 및 제3자 온라인채널을 함께 이용하는 데 반해, 중소형사는 제3자 온라인채널을 주로 이용함
- 온라인플랫폼을 운영하는 IT회사들은 보험대리회사나 보험중개회사 자격을 취득해 방대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다른 상품, 서비스와 결합된 패키지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
- IT회사들이 판매채널로서 보험시장에 진출하면서 전체 온라인채널 중 제3자 온라인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부터 80%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
 - 온라인채널 중 생명보험의 제3자 온라인채널 비중은 2016년 95.2%에서 2020년 84.7%로 소폭 감소했으나, 손해보험의 제3자 온라인채널 비중은 2016년 32.3%에서 75.1%까지 증가함

〈표 2〉 중국 IT회사들의 보험판매채널 진출 현황

IT회사	주요사업	취득시간	취득자격 유형
앤티파이낸셜(蚂蚁金服)	간편지급결제, 은행, 자산관리	2017. 9	보험대리회사
메이탄디엔핑(美团点评)	온라인 주문 배달	2018. 2	보험중개회사
텐센트(腾讯)	게임, 소셜미디어, 간편지급결제	2017. 9	보험대리회사
바이두(百度)	포털사이트	2017. 9	보험중개회사
360치후(360奇虎)	사이버보안	2019. 1	보험중개회사
바이트댄스(字节跳动)	동영상 공유	2018. 6	보험중개회사
디디추싱(滴滴出行)	온라인 차량 호출	2016. 3	보험대리회사
징둥(京东)	전자상거래	2018. 12	보험중개회사
수닝(苏宁)	전자상거래	2014. 2	보험대리회사
씨트립(携程)	온라인 여행 예약	2011. 7	보험대리회사
투뉴(途牛)	온라인 여행 예약	2013. 5	보험중개회사
동청(同城)	온라인 여행 예약	2013. 8	보험대리회사
취날(去哪儿)	온라인 여행 예약	2013. 9	보험중개회사
시나(新浪)	포털사이트	2017. 1	보험중개회사

자료: 华创证券(2020. 12)를 기초로 정리함

○ 중국 대형 IT회사들은 보험판매채널 외에도 보험회사 인수 및 지분 투자를 통해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시장에 진출함

-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인 앤티파이낸셜은 2013년 중안보험회사(2대 주주), 2017년 신미상호보험회사(최대 출자자) 설립에 참여했으며, 2016년에는 대만계 보험회사인 국태손해보험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함

- 텐센트는 2013년 중안보험회사(3대 주주), 2017년 화태생명보험회사(4대 주주)의 설립에 참여했으며, 2020년에는 삼성화재 중국법인 지분의 32%를 인수할 계획을 발표함
 - 2021년 초 장생생명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분의 70%를 매각한다고 발표했으며, 텐센트, 중국재보험회사 및 일본닛폰생명보험회사는 매각 지분을 인수할 의향을 발표함
- 징둥은 2018년 알리안츠보험 중국법인 지분의 30%를 인수했으며 2021년 대가보험그룹 지분의 20%를 인수할 의향이 있다고 밝힘
 - 대가보험그룹의 전신은 국내 동양생명 및 ABL생명을 보유하고 있는 안방보험그룹이며 현재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
- 시나는 2021년 5.85억 위안을 투자해 신미상호보험회사의 공동 최대 출자자가 됐으며, 디디추싱은 2021년 현대해상 중국법인 지분의 32%를 인수할 계획을 발표함

〈표 3〉 중국 IT회사들의 보험회사 인수 및 지분 투자 현황

IT회사	날짜	투자대상	보험업종	진행상태
엔트파이낸셜(蚂蚁金服)	2013. 1	중안보험회사	손해보험	지분 13.5% 보유
	2016. 7	국태손해보험회사	손해보험	지분 51% 인수 완료
	2017. 5	신미상호보험회사	생명보험	출자금 33.1% 보유
텐센트(腾讯)	2013. 1	중안보험회사	손해보험	지분 10.2% 보유
	2017. 1	화태생명보험회사	생명보험	지분 15% 보유
	2020. 12	삼성화재 중국법인	손해보험	지분 32% 인수 계획 발표
	2021. 7	장생생명보험회사	생명보험	지분 70% 중 일부 인수 검토
징둥(京东)	2018. 7	알리안츠보험 중국법인	손해보험	지분 30% 인수 완료
	2021. 7	대가보험그룹	보험지주회사	지분 20% 인수 검토
시나(新浪)	2021. 3	신미상호보험회사	생명보험	출자금 33.1% 인수 완료
디디추싱(滴滴出行)	2021. 3	현대해상 중국법인	손해보험	지분 32% 인수 계획 발표

주: 대가보험그룹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음

자료: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함

- 향후 중국 온라인채널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에 따라 IT회사들이 보유하거나 투자한 보험회사들은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
 - 중국 치엔잔산업연구원은 온라인채널이 2021년부터 매년 10%씩 성장할 경우 온라인채널 수입보험료는 2026년 4,700억 위안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¹⁾
 - MZ세대(20~30대) 소비자의 부상, 보험회사의 온라인채널 강화 및 IT회사의 보험업 진출 확대 등은 중국 온라인 보험시장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됨
 - IT회사들이 보유하거나 투자한 보험회사들은 모회사인 IT회사에서 자본, 기술 및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일반 중소형 보험회사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
 - 국태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엔트파이낸셜이 최대 주주가 된 후 수입보험료가 2017년 13억 위안에서 2019년 48억 위안까지 급증하였음

1) 前瞻产业研究院(2021. 6), “中国互联网保险行业商业模式与投资战略规划分析报告”